

장시

태양의 사랑은 세월의 한 끝까지

김태룡

봄, 4월의 봄
가슴에 간절한 수령님생각이
하늘땅가득 차넘치는 태양절
인민의 그리움 꽃으로 피어
수령님 꽃속에 환히 웃으시는가

한생토록 사랑으로 가꾸신 땅에
세세년년 만복의 열매 주렁지고
베푸신 은덕은 햇빛처럼 따사로워
오늘도 그 정을 두고 목메이는 마음에
뜨겁게 울리는 원수님말씀

—지금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덕을 보며 살고있습니다

아, 수령님의 덕!
누구보다 더욱 간절 하실 심중의
그리움
이 부름에 실어 그이 터놓으신것인가
그 말씀에 더욱 복받쳐오르는
수령님생각 수령님의 한평생이여

한생에 오직 인민밖에 모르시였어라
인민앞에 자신을 그토록 낮추시며
현신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신 어버이
만가지 덕을 안겨주시고도
천만가지 복 주시려 늘 마음쓰시
였어라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은
오복을 소원하였는데
나는 만복을 안겨주려 한다 하시며
끝없이 걸으신 로고의 길이여
문노니, 우리 한생 걸고걸은들
다 걸을수 있으랴 그 끝을 다 알랴

산간오지의 마을에 가면
마을의 맨 끝까지 찾아오시여
몸소 쌀독도 열어보시고
장맛까지 보아주시 이야기
세월을 넘어 눈물겹게 전해가더라

철없는 아이들의 숙제장도 번져보신
배움의 교정은 이 땅에 열매였고
새벽이슬 맞으신 논두렁에서
밤비까지 맞으며 나누신 농사이야기
그런 포전 이 땅에 헤어보아 열마더나

지금도 귀전에 울러오누나
자신께선 인민을 피해다니는
량반이 되고싶지 않다고

인민을 떠나
우리가 무슨 값있는 존재인가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절절하신 음성이

세상에 만가지 락이 있다 해도
명석우에 인민들과 마주앉아 나누는
허물없는 담소를 제일 즐겨하신분
세상 천하진미 있다 해도
인민을 찾아가시는 길에 달게 드시던
그 풋강병이의 별미를 제일로
여기신분

오로지 인민의 복락을 위해
멀어도 힘겨워도 가시던 길
다시 문노니, 봄빛질은 길이어
하늘처럼 인민을 떠받들어 오신
길에
일요일, 생신날 따로 있었던가

현실도 료해하고 인민들과 만나보는
이 이상 더 만족한 일요일은 없다고
이제 자신의 휴식이라 하시며
강사와 통강, 온천으로 이어가신 길
세월을 이어 온 나라 방방곡곡에 닿
았으니

해방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령님 맞으신 일요일은
7년세월과 맞먹는 2 530여일
그 많은 일요일은 수령님께 있어
로고와 심혈로 맞고보내신 로동일이
였어라

축하를 받으셔야 할 탄생일에도
양어장 썬터를 찾아 진창길 헤치시
였고
농사격정으로 논밭을 뜨지 못하시였다
탄전을 찾아 종일 탄문제로 마음
쓰시던
그날도 4월 15일이였다

그렇더라
달력에도 없는
수령님의 남다른 휴식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이였고
인민의 기쁨이였다

열과 정 심신을 다 바쳐온 성스런
생애
애국애민의 대장정과 같은
수령님의 80여성상

사람들이여, 우리 어찌
고생이란 범상한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이 땅에 맥맥히 굽이쳐간
그 헌신의 장장 천만리에서
인민이 꿈같이 맞은 복받은 년대
《기적의 나라》 《전설의 나라》로
내 조국이 세상에 빛을 뿌린 존엄의
년대

농촌레제의 빛발이 눈부셔
풍년벌에 농악소리 그칠새 없던
나날들이며
즐비하게 일떠서던 새 거리
공업국가의 역센 기둥 하늘에 치솟아
자립의 철마들이 탄생하던 전변의
나날들이여

꿈만 같이 펼쳐진 천지개벽
이제 모두 수령님의 은덕일세
어디서나 울려나오던 환희의 노래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인민이 고마움에 부르고부르던 노래

위인의 업적은 당대에 빛부리고
후세엔 추억의 갈피에 남는다 하지만
아니여라, 수령님은덕은
우리의 생활에 희열을 더해주고
번영의 력사로 이 땅에 이어져 흐르
거니

산을 보면 모든 산에서
황금을 파내라시던 그 음성 들려오
누나
매일 어린이들에게 과일 두알씩
어른들에게 한알씩 공급하자고
수첩에 손수 계산해보시던 과일의
알수
그 녀윈 알알이 익어 황금산이로구나

벼이삭 일렁이는 황금벌에 서면
허리춤에 두손 얹으시고
벼바다에서 웃으시던 수령님모습
우리를 잘살게 하여주시려
그리도 품을 들어 가꾸신 그 옥토벌
이다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넉넉다

풍어의 소식 그처럼 반가우시여
수령님 흥겹게 민요가락 넘기며
그리신
푸르른 바다 행복의 파도
오늘은 황금해에 일파만파 출렁이여라

어딜 가나 수령님자욱 력력한 땅
수령님 사랑과 은정 스며여있는 땅
이 땅을 살붙이처럼 한생 품어
안으시고
열과 정 강그리 다 쏟으신 우리
장군님

부락컨대, 봄이여
못 잊을 그 은공 부디 꽃으로 피워다오

대대손손 누려갈 더 좋은 래일 그려
보시며
푸른 산 푸른 들이라 조용히 외우시고
두고온 조국과 인민이 못내 그리워
천리 먼곳 이역의 하늘아래서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불러보시던
그 정깊은 음성 가슴울려 눈곱젖나니

수령님처럼 인민의 행복
그 하나의 소원만을 소중히 품고
사신분
하늘같이 넓고도 넓은 품에
자신의 심장처럼 뜨겁게 싸안으신
것은
오직 인민밖에 없으셨으니

수령님시대의 모든 영광을
가장 준엄한 년대에
눈부신 조선의 존엄으로 떨치셨어라
끝없이 부어주시 사랑과 정의 날과
달로
수령님은덕의 세월 이어주시였어라

수령님의 모습으로!
장군님의 의지대로!
오로지 이 뜻으로 가슴태우시며
만가지 복 차넘치는 이 땅우에
만가지 덕을 베푸시는 우리 원수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라 하신 원수님의
맹약
그 맹약속에 이어지는 인민사랑의

력사여
인민!
우리 수령님들의 위대한 생애
그 한생을 대신하는 이 부름에
가슴타는 열망을 얹으신 원수님
이 부름 아닌 그 무슨 말로
그이의 사랑 그이의 헌신을 말하랴

저 북변의 한끝 삼지연땅에
회한하게 일떠선 산간문화도시
양덕땅의 황홀한 온천문화휴양지여
저 중평땅의 무연한 온실의 바다
황홀하게 솟구치는 행복의 거리들
이여

우리 보지 않았더나
수도의 명당자리에 일떠설 종합병원
착공의 발 파 단 추를 누르시던
원수님모습
이 땅을 울리고 인민의 가슴울린
그 발파소리는 인간사랑의 위대한
선언!

이제 그 메아리
완공의 환호성으로 하늘땅을 뒤울
리리
저 동해의 기슭에 인과십리 굽이치고
새라새로운 전변과 기적들이
우리 사는 이 땅우에
더없는 궁지와 행복의 전설을 수놓
으리

그 누가 선심 베풀어준 덕이던가
풍요한 재부로 일군 우리의 행복이
던가
천리마시대 자력의 정신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주신 수령님들의 덕!
모든것을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강국의 력사 향도하시는 원수님의 덕!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으로 밝고
밝으냐
남다른 슬기와 꾸준한 정열을
창조와 기적의 기념비로 말하는
오, 김정은시대!
자기가 갈길 남에게 묻지 않으며
제힘으로 열여가는 번영의 미래는
행복의 오늘이 너무도 꿈만 같아
기쁨의 래일이 참으로 가슴벅차

여기서 우리 살리라
원수님 받들어 무궁토록
세상에 없는 행복 노래하며 살리라
오, 영원한 태양절과 더불어
인민이 못 잊는 태양의 사랑
길이길이 흐르리라 세월의 한끝까지

넘치는 웃음 노래로 이어져
이 땅에 울리는 행복의 노래
복받은 인민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꽃이 피었소
봄철에는 구름꽃 하얗게 피고
가을에는 알알이 붉게 익었소
...

60년세월이 흐르고 흘렀어도
수령님은덕, 장군님사랑을 길이 전하
는 노래
수령님리상 장군님의 녀윈
이 땅에 꽃피우실 원수님의 의지가
뜨겁게 열렬하게 어려있는 이 노래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녀윈대로
우리 나라를 꽃피는 사회주의락원
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고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열정이
솟구치군 합니더

오, 우리는 민노라
인민을 세상 제일로 여기시는 원수님
원대한 꿈 품으신 그이의 심장속에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와질
인민의 무릉도원 락원이 있음을

우리 수령님들 세우고 빛내이신
인민의 나라 인민의 천국에
강국의 기둥 억척같이 세우시고
수령님들 녀윈 꽃피는 이 하늘아래
영원한 사랑의 송가
인민찬가를 올려가실 우리 원수님

대대손손 수령의 은덕을 입고사는
우리처럼 행복한 인민 세상에 있
으랴

세상은 온갖 동란으로 아우성쳐도
웃음이 넘쳐 천만복이 차고넘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나라여

